

문화광장



노미경 (사)한국소리텔레비전작가협회 제주지부장

그렇게 뜨겁고 갈증 나던 여름날도, 귀찮던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뻐뻐하고 풀도 울며 돌아간다는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원함이 좋아지는 체감을 한다. 하루아침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밤새 기온이 내려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白露, 흰 이슬)라 했다. 저 멀리 풀벌레가 울기 시작하면 제비도 돌아오고 들날의 나락도 어느새 빛깔이 나날이 바뀌기 시작하는 정말 계절이 바뀌는 때임을 알린다. 벌써 뇌리에 스치는 것은 잠자리가 날아드는 누런 비가 생각나고, 코스모스와 어

당신은 어떠한 온도를 좋아하시나요?

우러진 갈대숲과 역새발, 뿔갈게 달아오른 새콤달콤한 오미자와 보랏빛 머루, 황금빛 감귤 밭의 향기도 가을을 대표하는 풍성한 체감 온도이다. 이러한 감성을 나만의 온도로 표현하면 얼마 정도를 표현하면 좋을지? 추석 때는 고향이 주는 감성을 충전하기 위해 멀다 않고 찾아드는 곳이 부모의 품이고 고향이고 조상의 땅이다.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네들이 해마다 목숨을 바쳐가며 가꾸어 놓은 여러 작물을 살림살이로 내어 주기 때문에 사실 감사함과 기대되는 때이기도 하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가족들의 입에 들어가면 행복의 온도는 높아져가는 것이고, 외양간의 녀석들도 호강을 하는 그런 따뜻하고 포근함이 흐르는 것이 생각만 해도 풍성한 계절이다. 하지만 농사는 해마다 밭에 따라 얼마만큼 거름을 잘 주고 손을 났느냐에 따라 태풍을 동반한 기후변화에 따라 적하

제도 보담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흙이고 자연물이다. 절기 백로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는 햇살이 뜨거워 오곡이 여름기 좋은 최상의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비가 적당하게 오면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천석(十里千石)을 늘린다'고 하지만 큰비가 오면 다 자란 곡식이 쓰러질 수 있어 오곡이 곁에만 여분다하여 단물이 빠져 낭패를 볼 수 있다고도 한다. 백로는 참으로 중요한 절기인 듯하다. 대농 풍작의 기로에서 기쁨의 온도를 높이느냐 실망의 온도를 줄이느냐를 결정하니 말이다. 자연적인 현상에서부터 인간이 느끼는 감성을 온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온도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삶의 희망이 되고 포기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내면적 심리온도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이것 또한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최근 베스트셀러 이기주 작가는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고 말한다. 어떤 온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현대인에게 공감을 받고 있다. '언어에는 나뭇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 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멋진 문구이고 공감 가는 언어 표현이다. 자연을 통해 삶을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무엇인가에 대한 온도에 대해 언급해 보았다. 따뜻한 언어를 듣기가 쉽지 않은 사회에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행동과 표정까지 진정한 마음의 온도를 담아낸다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열린마당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세요



김미순 제주시 에듀케어 주민복지팀장

가정에서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도가 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월 80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

부지원이 3000원이며, 부모는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받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저귀, 침구, 간식 등 개별 준비물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차감없이 지급되며, 시간제 보육반은 별도의 전담교사가 종일반 영아와 분리된 공간에서 담당한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신청 후에 예약 취소 및 변경시에는 별첨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 보육교사, 제공기관, 정부가 힘을 합치는 공동육아의 시발점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이장 의견, 변호사 자문 거쳐 읍장이 결정"

원지사 "조국 임명 통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이날 오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일갈. 원 지사는 "물론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는 '수족재주(水則載舟)' 수족부주(水則覆舟)는 모든 권력의 지침인데 배가 바다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이(여권의) 오만함의 끝은 어딘가"라고 힐난.

이어 "권력의 오만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지도자의 고집은 무능과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고인. 이소진기자

선홍2리 이장 해임건 고심

○...제주시 조천읍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선홍2리의 이장 해임건을 놓고 고심. 조천읍은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반대 주민들이 선홍2

리 임시총회 결과로 이장 해임 요청을 접수함에 따라 이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조천읍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되는 자(이장)는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장의 의견서, 변호사 자문을 검토 후 읍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고대로기자

비엔날레 무대감독 선정?

○...제주도립미술관이 9일 '2020년 제주비엔날레 사전준비와 행사 운영 착수보고회' 보도자료를 내려 일부 영동한 표현을 사용. 자료에는 지난 7월 행사 운영 대행사와 예술감독을 선정해 두 번째 제주비엔날레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감독을 '무대감독'으로 표기.

이를 두고 "미술관 학예사들이 자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거나 자료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는 반응. 전선희기자

사설

태풍·가을장마 피해 농가 지원대책 서둘라

추석을 앞두고 태풍에다 가을장마가 계속되면서 제주지역 농가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했던 농심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3호 태풍 '링링'은 특히 감귤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등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자 등 밭작물도 가을장마로 인한 썩음병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풍까지 이어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귤의 경우 추석 대목을 기대하면서 수확할 꿈에 부풀었던 비닐하우스 피해가 큼니다. 서귀포시 서호풍을 중심으로 천혜향과 한라봉 등 비닐하우스 1만2000여㎡가 파손됐습니다. 이때문에 출하를 꿈꿨던 일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농가들로서는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피해복구가 시급하지만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으로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을 통한 대책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탁상행정 아닌 피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세심한 지원대책이 나와줘야 합니다.

감자, 마늘 등 농작물의 경우는 당장의 피해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이미 파종기에 접어들었지만 태풍과 계속되는 장마로 시기를 놓친데다 병충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파종과 생육이 이뤄질지 농가들로서는 걱정이 큼니다. 태풍 파손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농작물에 대한 종합대책도 나와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를 비롯 행정당국과 농·감협 등 유관기관이 서둘러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에상량 늘어 우려된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지온주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은 줄고 있으나 생산에상량은 늘어나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비닐씨가 장기간 이어진 가을 장마 영향으로 감귤 당산비가 평년과 차이를 보이면서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농업기술원의 올해 노지감귤 착과상황 관측조사에 따르면 노지감귤 생산량은 52만8000t 내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생산량(46만7600t)과 비교해 6만400t 많은 수준입니다. 이번 관측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458곳 916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측조사 결과 노지감귤 나무당 평균 열매수는 938개였습니다. 이는 최근 5개년 평균 평균 837개보다 101개(12.1%) 많고, 전년보다 122개(15%) 많은 양입니다. 열매 크기는 42.4mm로 전년

보다 2.2mm, 평년보다 2.5mm 컸습니다. 당도는 6.8브릭스로 전년보다 1.4브릭스, 평년보다 0.5브릭스 낮았습니다. 산함량은 3.28%로 전년보다 0.11%, 평년보다 0.25% 높았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2018년산 감귤은 적정량이 생산됐지만 재고를 받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올해산 노지감귤이 재고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감산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최근 계속된 비닐씨로 감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감귤이 재고를 받으려면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제주감귤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품질'을 꼽은 바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부고 김철수(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제주영락교회 장로) 어머니 신천강씨 문선(향년 8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8일 23시에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0일(화)
▶발인예배: 2019년 9월 11일(수) 오전 5시 50분
▶빈 소: 제주영락교회 소망실
▶장 지: 양지공원→제주영락동산 (오전 7시 천국환송예배)

부고 김승찬(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장) 어머니 남양홍씨 광자(향년 76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9일 10시 5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0일(화)
▶발인일시: 2019년 9월 11일(수)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능협장례식장 301호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법인합병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영도 등)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존속법인의 법인합병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호(법인합병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합병업체 정보 비고
상호(대표자) 이만건설(주) 대이테크건설(주) (합병대상)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4
· 이선범위반
· 피고인 강용욱
위 피고인은 어선범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9
판사 최석문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아들 김철수 며느리 이해숙
철홍 철민
딸 김옥미
손자 김신욱 외손자 임수훈
손녀 김신혜 외손녀 임수경
주혜 수연
*연락처 : 김철수 010-3697-4560
김철민 010-5739-7779
김옥미 010-7358-3627

아들 김승찬 며느리 신소영
승범 김순희
딸 김승희 사위 조영기
승진 김영조
*연락처 : 김승찬 010-6211-2978
김승범 010-3920-2978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국내 특허 제품이며 한시적으로 무료제공함.
도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바이오테프틴
*모공이 닫힌분은 전혀 효과없음
TEL. 064-725-0622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제주편백우드(영)
제주시 보배길32-16 (제주대학교병원쪽)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